

19/03/17

마두반

천사체 밥다다 음 산티

2000/03/19

생산적이 되는 것과 겸손함을 가지는 것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축복의 계좌에 축적해라.

오늘 밥다다는 그의 성스럽고 행복한 백조들의 집회에 들어왔다. 어디서든 성스러운 백조들이 보인다. 너희 모두 성스러운 백조들의 특질을 아주 잘 안다. 한결같이 성스럽고 행복한 백조가 된다 함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다. 성스러운 백조들은 깨끗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므로 그들의 순수한 소망은 모두 쉽게 이루어지고 그들은 항상 완전히 만족된 상태로 머문다. 너희가 고귀한 생각을 하자마자 그것은 성취된다. 노력할 필요가 없다. 어째서냐? 밥다다에게 극진히 사랑 받으며 아주 가까운 영혼들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밥다다의 가슴의 옥좌에 앉아 있다. 그들의 고귀한 생각이 모두 성취되므로 그들은 느긋하고 맑아 보이고 그들의 태도, 시선, 말, 관계, 연결에도 역시 느긋하고 맑아 보인다. 그들의 편안함을 나타내는 표시는 그들의 마음, 머리, 말이 모두 일치한다는 점이다. 마음속 생각과 말이 서로 다른 것은 느긋함의 표시가 아니다. 편안한 성질을 가진 자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성질을 가지며, 에고가 없고 이기적이지 않다. 성스러운 백조는 느긋한 성질, 쉬운 말, 편안한 태도, 너그러운 시선이라는 특질을 가진다.

올해 밥다다는 너희 모든 자녀들의 활동과 얼굴에서 두 가지 특별함을 보고자 한다. 너희들 모두, 이젠 저희들이 뭘 하게 될까요? 라고 묻는다. 이번 시즌의 마지막 미팅 후에 저희는 뭘 하게 되나요? 라고. 너희 모두 다음 번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엔 너희가 뭘 하게 될까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 중 대다수는 각자의 힘에 따라 봉사 분야에서 아주 잘 발전했고 전진했다. 밥다다는 이 발전에 대해서도 역시 너희를 축하한다. 아주 좋다! 아주 훌륭하다! 아주 좋아! 이것과 더불어 밥다다는 너희의 결과에서 또 한 가지를 보았다. 그게 뭐였는지 말해줄까? 선생들아, 바바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중의 외국인들아, 바바가 너희에게 말할까? 판다바들아, 바바가 너희들에게 얘기해줄까? 너희가 손을 들어야만 바바가 말해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이가 다 손을 들었다) 아주 좋구나! 바바가 뭘 한 가지 더 보았겠느냐? 오늘 밥과 다다는 서틀리전에서 마음의 대화를 나눴다. 그들이 어떻게 진심의 대화를 가졌겠느냐? 그들 둘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겠느냐? 이 세상에서 사람인 너희들은 단일한 행위를 행한다. 너희는 이것을 아주 잘 한다. 물질세계에서는 하나의 영혼이 두 가지 배역을 연기하지만, 밥다다는 하나의 몸 안에 들어 있는 두 영혼이다.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매우 즐겁다.

그래서 오늘 밥과 다다는 서틀리전에서 진심의 대화를 나눴다. 무엇에 관해서였겠느냐? 너희들 모두 아버지 브라마가 무엇에 열의를 가졌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지? 아버지 브라마는 모든 일을 아주 빨리 일어나게 하려는 데 열성적이었다. 그러므로 아버지 쉬바는 아버지 브라마에게, 멸망이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박수 한번 치는 것만큼의 일도 아니다, 라고 일렀다. 그건 그저 손가락 하나 튕기는 일이다. 그러나 맨 처음에 염주를 만들어라, 108의 염주까진 안 되더라도 최소한 그 절반의 염주만이라도 만들어라!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가 뭐라고 대답했겠느냐? 그가 무슨 대답을 했겠느냐? 바바에게 말해봐라! (준비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앗차, 염주의 절반조차 아직 준비되지 않았느냐? (모든 이가 웃었다.) 너희가 웃고 있는 걸 보니 뭔가 있기는 하다는 뜻이다. 염주의 절반은 준비되었다고 보는 자들은 손을 들어라! 그것이 준비되었느냐? 아주 적은 수로구나. 지금도 염주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손을 들어 봐라! 대다수는 아직도 그것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는구나. 그것이 준비되었다고 보는 자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염주가 준비되었다고 손 든 자들 모두에게 밥다다가 청하는데 그 이름들을 적어서 밥다다에게 내주기 바란다. 이것이 좋지 않느냐? 오직 밥다다만 이걸 볼 것이다. 그것은 밀봉될 테고 다른 누구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되는 유망한 보석들이 누군지 밥다다는 보겠다. 밥다다도 역시 몇몇 보석은 있어야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 이름을 적고 그들의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아버지 브라마가 뭐라고 대답했겠느냐? 너희들 모두 아주 좋은 대답을 했다. 아버지 브라마는, 늦어지는 것은 단지 당신이 손가락을 한번 튕기는 정도의 일이고 그들은 준비될 것입니다, 라 했다. 그러니 그것은 좋지 않느냐? 그러자 아버지 쉬바가 묻기를, 앗차, 염주 전체가 준비되었느냐? 라 했다. 염주 절반에 대한 대답은 나왔고 그는 염주 전체에 대해 물었다. 그것에 대해 그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진심이 오고간 대화였다. 어째서 시간이 약간 필요하냐? 그들의 진심의 대화에서 틀림없이 질문과 대답이 있지 않았겠느냐? 왜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하냐? 어떤 특정한 약점이 절반의 염주마저도 준비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느냐? 아버지 브라마는, 각 지역에서 자녀들이 모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너희들 각자에게는 해당되는 지구가 있지만 지구는 아주 크기 때문에 각 지구가 아니라, 그는 특별한 도시 하나하나가 나오게 했고 그들은 각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을 보며 아버지 브라마가 말하기를, 만일 자녀들 모두 한 가지씩 특정한 특기를 빨리 훈습한다면 염주가 준비될 것입니다, 했다. 어떤 특기냐? 그래서 그가 말하는데, 너희는 봉사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고, 그 봉사를 하면서 앞서 나아갔다. 너희는 아주 잘 전진했다. 하지만 한 가지 특정한 측면에서 균형이 부족했다. 너희가 잘 전진해 나간 측면은 건설 (니르만)의 과제에서였고 또 겸손 (니르만)도 역시 있었다. 하나는 건설, 또 하나는 겸손이어야 한다. 한 글자의 차이뿐이다. 그러나 건설적인 것과

겸손한 것의 균형에서 차이가 생긴다. 봉사하며 전진해 나아가는 동안 몇몇 장소에서는 겸손이 없고 그것 대신 때때로 너희 자신의 에고가 섞여 든다. 봉사에서 너희가 더 많이 발전할수록 너희 태도, 시선, 말, 행동에서 더욱 겸손이 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너희는 모든 관계와 연결로부터 받아야 마땅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 다른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비록 그것이 좋다 해도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 너희가 축복의 계좌에 축적하고 있지 않다면 그 경우엔 너희가 공여자의 단계 혹은 자비로운 단계를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그와 동시에 밥다다와 가족들 중 손아랫사람들과 시니어들에게도 축복을 받아라.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은 너희가 각자 자선의 계좌에 쌓는다는 뜻이다. 이것이 너희의 점수에 보태진다. 원하는 만큼 많이 봉사해라. 너희가 하는 봉사에 몰두해 지냄으로써 계속 발전해라. 하지만 밥다다는 모든 이가 봉사하는 것과 함께 겸손을 지니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것을 너희들의 자선 계좌에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엔 너희가 봉사를 무척 많이 했다는 등 이걸 하고 저걸 했는데도 어째서 너희의 등수가 뒤쳐지느냐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 밥다다가 너희들에게 미리 사전에 신호를 보내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너희는 현재 이때에 자선의 계좌에 아주 많이 축적해둬야 한다. “이 사람은 어쨌든 이래.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너희는 성질을 바꿀 수 있다. 너희는 성질을 조정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브라민 영혼들을 조절할 수 없느냐? 너희에게 맞서는 자들을 바로잡아라. 이것이 건설적인 것과 겸손한 것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이 얘기를 귀담아 들었느냐?

이번이 마지막 미팅이니 바바가 너희들에게 숙제를 주지 않겠느냐? (바라트와시들에게는 그것이 시즌의 마지막 미팅이었다.) 너희는 숙제를 좀 받을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밥다다가 다음 시즌에 오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러나”라는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봐라! 사카르 바바가 맡았던 역할은 지속되고 있으며 아비약트 바바의 역할도 역시 지속되고 있다. 이 아비약트의 역할이 이처럼 오래 계속되리라고는 아무도 꿈조차 꾸지 못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 모두 드라마에 따라 지속되어 왔다. 이제 조건을 하나 달아야겠느냐? 너희는 무엇을 제안하려느냐? 그냥 이렇게 계속되게 해야 할까? 왜 묻느냐고? 오늘 서틀 리전에서 바바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질문을 받았다. 그러므로 밥과 다다도 역시 진심을 나누는 대화에서 드라마에서의 이 긴 배역이 얼마나 오래 계속될지예 관해 논의했다. 이것에 날짜가 있느냐? (바바가 데라둔에서 온 프렘 자매에게 물으심.) 바바에게 별자리 운세를 말해보렴! 이것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겠느냐? 이 질문이 지금껏 제기되어 왔다.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느냐? 그래서... 너희에게는 6개월이 있다, 그렇지? 다음 시즌이 6개월 후에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결과를 보기 원한다. 깨끗한 마음이다! 너희 마음에 낡은 산스카르의 얼룩, 교만 (아비만), 모욕당하고 있다는 (아프만) 느낌이 전혀 없게 해라.

밥다다에게는 너희 마음을 사진 찍는 기계도 역시 있다. 여기서 너희는 엑스레이로 신체의 심장을 들여다볼 수 있다. 서틀 리전에서는 마음의 사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인다. 여러 가지 유형의 크고 작은 얼룩들이 있다. 얼룩 중 일부는 흐릿하고 나머지는 아주 분명하게 보인다.

너희들은 오늘 홀리를 축하하려고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이것이 마지막 미팅이어서 너희들은 먼저 숙제를 받았다. 하지만 너희는 또 홀리 축제의 의미에 관해 남들에게도 알려줘야 한다. 홀리를 축하한다는 것은 과거를 과거이게 한다는 뜻이다. 홀리를 축하한다는 것은 너희 마음에 어떠한 유형의 크거나 작은 얼룩도 없다는 뜻이다. 그것은 완전히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성취로 가득해진다는 뜻이다. 밥다다가 전에도 너희 자녀들에게 일렀듯이,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지녔기 때문에 밥다다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건 너희가 많이 애쓰는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너희는 애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마음의 위로자가 너희 마음속에 합쳐져 있을 테고 너희는 마음의 위로자의 마음속에 합쳐진 채로 머물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 마음속에 합쳐져 있을 때 마야는 미묘한 형태로든 왕족다운 형태로든 또는 거친 형태로든 너희 마음에 들어갈 수 없다. 마야는 심지어 너희들의 생각이나 꿈에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애써야 하는 데서 해방될 것이 아니냐? 밥다다는 또 너희가 마음으로 애쓰는 데서마저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애쓰는 데서 자유로운 자들만이 해방된 삶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다.

홀리를 축하한다는 것은 애쓰는 데서 (메나트묵트) 자유로워져서 해방된 삶 (지반묵트)을 경험하며 지낸다는 뜻이다. 밥다다는 이제 너희가 마음의 힘으로 봉사를 강력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말을 통한 봉사는 계속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테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시간은 짧고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봉사가 많다. 너희들 모두 결과를 제출했다. 이제까지 너희는 108의 염주조차 만들 수 없었다. 그러므로 16,000이나 90만의 염주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먼 얘기다. 이를 위해서 너희에게는 빠른 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마음을 고결하고 정결하게 가져라. 단 1초도 낭비되지 않게 해라. 지금까지도 너희들 대다수에게 낭비적인 생각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있다. 불순한 생각들은 아니지만 낭비적인 생각이다. 이런 이유로 마음을 통한 너희의 봉사가 빠른 속도로 행해지지 않는다. 지금 홀리를 축하한다는 것은 너희 마음을 낭비적인 생각에서도 해방시켜서 성스럽게 만든다는 뜻이다.

너희는 홀리를 축하했느냐? 축하한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의미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색깔로 홀리를 축하한다. 그러나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에게 신성한 미덕들, 신성한 힘들, 지식의 장미꽃들의 색깔을 뿌려주고 있다.

오늘 서틀 리전에는 다른 소식들도 좀 있었다. 첫 번째 소식, 즉 진심의 대화에 관해서는 너희가 이미 들었다. 두 번째 소식은 선발대에 들어온, 봉사에서 너희의 좋은 동반자인 자들 모두를 위해 오늘 서틀 리전에서 홀리를 축하하는 날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는 그들을 모두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디들, 친구들, 판다바들을 기억하지? 선발대는 무척 커졌다. 너희가 만일 그들의 이름을 적는다면 아주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온갖 유형의 영혼들이 홀리를 축하하려고 서틀 리전에 왔다. 모두들 각자 노력의 결과에 따라 다양한 배역을 연기하고 있다. 선발대의 역할은 아직도 은밀하다. 너희는 그들이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들 모두를 불러내고 있다. 그들은 너희 모두가 완성되어 신성한 탄생을 해서 새로운 세계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행복하다. 그들은 합류시대에 자기들이 거기에 갔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비록 그들에게 신성함, 순수성, 신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이 지식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독특하지만, 만일 이 지식이 그들에게 나온다면 그들 모두 마두반으로 달려오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의 배역은 독특하다. 그들은 지식의 힘을 갖고 있고 그 힘은 줄지 않았다. 그들 가정의 분위기는 변함없이 행동수칙을 따르는 것이고 그들의 부모는 그들에 대해 만족스러워한다. 그들에게는 물질적인 편의시설도 모두 다 갖춰져 있다. 그들은 행동수칙을 지키는 데 확고하다. 그들도 모두 등수대로지만 특별한 영혼들은 매우 확고하다. 그들은 자기의 전생이 위대했다고 느끼고 다음 생도 역시 위대하리라고 느낀다. 그들 대부분의 외모에서 보이는 것은 왕가의 충족된 영혼들의 모습이다. 그 영혼들은 완전하고 명량하며 모든 신성한 미덕들로 충만해 보인다. 그것이 그들의 역사다. 하지만 서틀 리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겠느냐? 그들이 어떻게 홀리를 축하했겠느냐? 바깥의 사람들이 갖가지 색깔의 물감 가루를 쟁반 여러 개에 담고 있는 장면을 너희들 모두 봤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물감 가루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틀 리전에는 미묘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이아몬드들은 무겁지 않았다. 너희가 물감 가루를 손에 들어보면 아주 가볍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온갖 색깔의 다이아몬드가 가득 쌓인 쟁반이 많이 있었다. 모든 이가 서틀 리전에 올 때 어떤 형태를 취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빛의 형태가 아니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 빛으로 된 몸은 어쨌든 이미 빛나고 있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모든 이를 합류시대의 몸으로 나오게 했다. 모두들 합류시대의 몸으로 나오자 그들 모두 서로와의 만남을 축하하기 시작했다. 각자 선발대의 생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잊고, 합류시대의 모든 것이 나왔다. 그래서 그들이 합류시대의 일들에 관해 서로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너희 모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엄청나게 행복해하며 서로 나누었다. 밥다다는 그들이 매우 즐기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끼리 만나게 하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들은 서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바바가 이 말씀을 했어요. 바바는 나를 이런 식으로 사랑했죠. 바바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바바는 늘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바바에 대해 말했고, 바바뿐, 바바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에... 너희는 어쨌든 모든 이의 산스카라를 안다. 이 그룹에서 누가 제일 재미있었겠느냐? (디디와 다디 찬드라마니입니다.) 디디가 먼저 일어섰다. 그녀는 다디 찬드라마니의 손을 잡고 라스 (원을 이루어 빙빙 도는 춤)를 시작했다. 여기서 황홀경에 들어가 도취되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춤을 많이 쳤다. 그들은 마마를 가운데 서게 하고 그녀를 둘러싸고 원을 형성했다. 그들은 서로 “숨바꼭질” 놀이를 했다. 그들은 한참 놀았고 밥다다는 그저 미소만 띠고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들은 홀리를 축하하려고 거기에 갔으므로 많이 놀았다. 얼마쯤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 모두 바바의 품에 안겨 사랑 속에 잠겼다.

그 다음에 밥다다는 아주 미묘하고 갖가지 색깔이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모든 이에게 뿌렸다. 여기에 아주 고운 가루가 있듯이 그 다이아몬드들도 그러했으며 매우 반짝이고 있었다. 밥다다는 그것들을 모든 이에게 뿌렸다. 그들의 몸은 이미 빛나고 있었지만 온갖 다양한 색깔의 다이아몬드가 그들 위에 뿌려지자 그들은 아주 대단하게 치장되었다. 빨강, 주황, 노랑 등 일곱 가지 색깔을 말하지 않느냐? 그 일곱 가지 색깔이 다 있었다. 그들 모두가 매우 빛나기 시작했다. 심지어 황금시대에도 그런 옷은 없을 것이다. 모든 이가 어쨌든 스스로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에게 뿌려주기 시작했다. 장난기 심한 재미난 자매들이 많았다. 그들은 진정으로 무척 즐겼다. 너희가 스스로 즐긴 후에는 뭘 하느냐? 내일 너희는 보그를 올릴 테지만 밥다다는 모든 이에게 미리 합류시대 마두반의 다양한 보그를 주었다. 그 중에서도 홀리 때의 특별한 보그는 뭐냐? (달콤한 푸리와 잘레비입니다.) 너희들 모두 장미꽃잎을 날리지 않느냐? 그들에게 합류시대의 다양한 보그가 주어졌다. 너희가 보그를 받기 전에 그들 모두 보그를 받았다. 너희는 그걸 내일 받을 것이다! 앗차. 요컨대 그들 모두 대단히 많이 축하하고 춤추고 노래 불렀다. 그들 모두, 와 바바! 나의 바바! 나의 다정한 바바! 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먹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엔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 인사와 축하를 하고 나면 너희는 작별인사를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 모두 이것을 축하했느냐, 아니면 그저 얘기를 듣기만 했느냐? 어쨌든 너희들은 우선 먼저 빛의 몸을 가진 천사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너희의 몸이 지나치게 크고 무거우냐? 아니다! 1초 이내에 더블 라이트의 빛나는 형태가 되어라. 너희는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완전한 천사가 되어라. (바바가 훈련을 주도하심.)

자 이제 다양한 색깔의 다이아몬드를 너희의 미묘하게 빛나는 몸 위에 뿌리고 미덕들, 힘들, 지식의 신성한 색깔에 변함없이 물들어 있어라. 전체 모든 색깔들 중에서 제일 위대한 색은 밥다다의 동반에 물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색깔에 끊임없이 물들어 있는 상태로 지내라. 영원히 이렇게 머물러 있어라! 앗차.

이 나라와 외국의 천사 같은 자녀들에게, 언제나 깨끗한 마음과 끊임없이 모든 성취로 가득한 자녀들에게, 참된
홀리를 축하하는 자들, 즉 이 형상을 실제형태로 옮겨 실천하는 자들에게, 건설적인 것과 겸손한 것의 균형을
유지하는 자녀들에게, 각자의 계좌에 언제나 축복을 쌓아놓는 자녀들에게, 수수수 백만 곱절로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Blessing: 신에게 사랑 받고, 모든 걱정을 아버지에게 줌으로써 태평한 단계를 경험해라.
신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은 변함없이 가슴의 옥좌에 앉아있다. 마음의 위로자의 가슴에서 그들을
떼어놓을 용기를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영적인 도취감을 갖고 세상에
너희들이 이제는 신에게 속한다는 말을 한다. 이러한 도취감 속에 머물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자유롭다. 너희는 실수로라도 오늘은 마음이 좀 슬프다거나, 마음을 집중할 수
없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다. 그런 말은 낭비적인 말이다.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려움
속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Slogan: 온갖 유형의 격변을 끝내는 수단은 드라마에 대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 옴 산티 O M S H A N T I ***